스트라이크 아웃

(행13:1~12)

4.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6.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7.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9.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우리말로 하면 삼진입니다.
야구용어라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시지요?
이 야구용어가 조금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은 타자가 아웃이 되는 건데, 타자가 아웃되지 않고 출루를 해서 다시 홈을 밟게 되면 1점이 나게 됩니다.

이게 야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타자가 투수의 공을 쳐서 출루하는 것을 말할 때 히트라고 하고, 타자가 공을 쳐내지 못하고 타석에서 아웃될 때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반대 상황이 만들어내는 단어가 hit 와 strike 인데, 둘이 같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히트(hit)도 '치다, 타격을 가하다'라는 뜻이 들어있고, 스트라이크(strike)도 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둘 다 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가?
이게 바로 타자와 투수의 싸움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자와 투수의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어떡하든지 투수는 타석에 들어선 타자가 출루하지 못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타석에서 쳐내는 거예요,
타석에서 출루하지 못하게 하려면 타석에 묶어두고, 뿐만 아니라 타석에서 아웃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그 반면에 타자는 어떡하든 투수의 공을 히트해서 타석에서 아웃되지 않고 반대로 출루하려고 합니다.
둘 다 치는 거예요, 둘 다 쳐서 싸우는 겁니다.
타자도 투수를 치려고 하고, 투수도 타자를 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타자가 투수를 쳐서 이기는 방법은 투수가 던지는 공을 쳐내는 것이고, 투수가 타자를 이기는 방법은 공을 스트라이크 존으로 넣어서 헛스윙을 하든지 치지 못하게 해서 타석에서 떨궈 내버리는 겁니다.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hit가 야구에서 hit이지만 이 히트가 갖고 있는 뜻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래어로서 사용하고 있는 히트라는 말에는 사전적으로 '세상에 내놓거나 발표한 것이 크게 인기를 얻는다' 그렇죠, 히트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크게 인기를 얻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트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인생을 주관해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욕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살게 되는 내 인생 자체가 히트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인생의 매순간 순간 내게 닥쳐진 상황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히트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키운다면, 그 자식을 키우는 일이 히트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히트가 되는 거예요, 인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마음의 움직임이 히트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 내가 내놓은 것, 내가 하는 것, 내 인생이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것, 히트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히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삼진 아웃을 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매인생의 구간 구간마다, 상황 상황마다, 우리는 타석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문제를 놓고 생각한다고 할 때, 타석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의 문제를 어떻게 쳐내서 히트를 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 사업에서 히트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일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히트를 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그 상황에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타석에 들어선 타자인 나를 타석에서 스트라이크 아웃 시켜버립니다, 쳐서 떨쳐 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이제 교회의 발전단계가 어디에 이르렀는가 하면,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합니다.
열두 사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사역에 의해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고,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면서 이방선교를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이방사회에 전념하게 된 단계에 도달한 것을 오늘 13장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선교의 전초기지는 안디옥교회가 됩니다.
이 안디옥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이방사역의 선봉장이 바로 사울, 오늘

본문에서 이름을 바꿔 쓰게 된 바울과 바나바였고, 사도행전은 앞으로 바울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교회에서 안수 받고 선교사로 출범하면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첫머리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안디옥에서 조금 내려와서 배를 타고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러스에요.
그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대표적인 두 사람의 복음에 대한 반응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마술사 엘루마입니다.
그리고 마술사 엘루마가 상관으로 섬기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 마술사 엘루마는 복음을 방해해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총독이 복음을 듣게 되자 질투심이 나서, 자기를 인정했던 총독이 자기를 버리고 마음을 딴 데로 돌릴까봐, 여하간 어떤 이유에서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때 바울이 저주를 해서 눈이 멀게 되잖아요, 근데 일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겠지요.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시간을 정합니다.
이렇게 엘루마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마술사 엘루마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봅니다.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서 베드로가 빌립 집사님이 선교해서 세워진 사마리아교회들을 방문해서 안수하여 세례를 받게 할 때, 거기에서 마술사 시몬이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위해 돈을 지불하겠다고 할 때도 베드로가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마술사가 나와요, 이렇게 마술사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술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 보편적이라는 건 모든 인간 속에 들어있는 욕구를 상

징하는 존재입니다 - 욕구, 그 욕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소원하게 되는 것을 다 이루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에요.
그런데 내가 소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내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 속에는 그런 꿈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다 누구에게나 이런 욕망이 있는데, 이런 욕망을 겉으로 드러내 표현하는 상징적 존재가 마술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을 펼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게 마술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술사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이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이, 능력을 갖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 그러면 왜 능력을 갖고 싶어 합니까? 내가 마음속에서 이루고 싶은 것 소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이루고 싶은 욕구에서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과 관계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의 바람 속에는 전혀 나 자신이 누군가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의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 삼지 않고 무조건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문제 삼으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요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존재가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떤 자인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나'는 묵인하고 이제부터 그러한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능력만을 문제 삼아서, 자기계발서라는 게 다 이런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은 자기계발이고 '나'를 바꾼다고 그러지만, 결국 나를 바꾼다는 이유는 내가 소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말하는 게 자기계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술사로 대표되고 있는 것이 그런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이루고 싶은 능력을 갖추기 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존재가 마술사다.

그러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또 다른 인간 유형으로, 여기서 보면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 플레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크 플레소’라는 단어는 아웃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에크는 out of, …로부터 나오는 것, 바깥이라는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고, ‘플레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어의 strike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풀어서 영어로 말하면 그대로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총독이 놀랐다고 하는 이 말, ‘에크 플레소’라는 단어는 수동태형의 단어인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두려움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키프러스라고 하는 이 섬 안에서는 총독이 일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인자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객입니까?
아니면 로마황제가 총독의 자리를 삭탈한다고 하는 명령을 전하는 황제의 사신입니까?
아니면 독살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음모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은 스트라이크 아웃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라이크 아웃되었다는 게 뭡니까?
사이프러스에서 제1인자인 총독이 자신의 타석으로부터 떨쳐져 내팽개쳐졌다는 얘기에요.
자기 자신의 타석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스트라이크 아웃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싸인 거예요.
사이프러스 섬에서 제1인자의 자리인 총독이 자기 자리에서 삼진아웃 돼버려서 바깥으로 떨쳐져버렸으니까 두려움에 싸일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총독의 자리로부터 삼진아웃 시켜버린 내용이 ‘주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복음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주에 대한 가르침이 총독을 삼진아웃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받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한다고 하는 내 타석에서 나는 히트를 목표로 살고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쳐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히트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타석에서부터 스트라이크 아웃 당해버린다는 얘깁니다.
이게 바로 오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놀랍게 여긴다는 건 '내가 삼진아웃 되었다, 내 자리로부터 떨쳐져 나가버렸다'라는 얘깁니다.

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사건이 복음이 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를 타석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바라고 있던 소원을 이루어서 히트 치게 하는 대신에, 삼진아웃을 시키는 것일까요? 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생각납니다.
홈런왕이라고 하면 행크 아론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 행크 아론의 기록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베리 본즈에 의해서 2007년에 갱신이 됩니다마는, 베리 본즈가 약물복용 이런 것 때문에 인상이 아주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행크 아론이 홈런왕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행크 아론이 홈런을 755개를 쳤고, 베리 본즈가 762개를 쳐서 기록이 갱신되었는데, 이 홈런왕 행크 아론이 710개의 홈런을 쳤을 당시 오그 만디노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냅니다.
행크 아론이 소속된 야구단에 전화를 걸어서 행크 아론이 그동안 삼진아웃을 몇 번 당했는지를 물었는데, 1269개의 삼진아웃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홈런 하나 칠 때마다 삼진아웃을 두 번 당하는 격이 된 겁니다, 대충 계산해서.
삼진아웃 1269개 위에 710개의 홈런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비유로 그대로 갖고 와봅니다.
복음은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타석에 들어서서 히트를 쳐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히트치면서 살아야 되는 입장인데, 왜 삼진아웃을 시키는 것일까?
나의 삼진아웃 위에서만, 원래 내 인생의 상황에 대해 뜻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취하시는 홈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삼진아웃 되고 스트라이크 아웃 되어버릴 때, 자식 앞에서 히트치려고 했던 엄마의 자리에서 아웃돼버리고, 남편 자리에서 스트라이크 아웃 되고, 사업가 자리에

서 아웃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가 스트라이크 아웃되고 총독의 자리에서 스트라이크 아웃될 때에 바로 그 타석에 대타로 들어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홈런을 치신다는 얘기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트라이크 아웃되게 해주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내가 스트라이크 아웃되었을 때 사람들은 내게서 권능이 나타난다고 보지만, 내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홈런을 치시는 거예요.
그 홈런은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홈런이 우리 눈에 보일 때, 너무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순교처럼 보일 수도 있고, 베드로와 사도바울에게 나타났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지가지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지만 어쨌든 평범해도, 순교해도 능력이 나타나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내 타석으로부터 나는 스트라이크 아웃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타석에 들어서시고 당신의 뜻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홈런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히트 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사건이 아니라, 삼진아웃 시켜버림으로써 하나님의 홈런이 나오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 소원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욕망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아예 타석에서 떨쳐져버리는 삼진아웃의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나의 삼진아웃 위에서 하나님의 히트와 하나님의 홈런이 인생의 매순간마다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